



“뾰은 우리 본성에 숨은 어두운 숲 똑바로 응시하고 제대로 대처해야”

정유정 소설가 '종의 기원' 발표
'사이코패스' 유진 둘러싼
3일간의 이야기
빠른 호흡·거침없는 문장
악의 본질 여과없이 드러내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내면의 악, 타인의 악, 나아가 삶을 위협하는 포식자의 악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덧붙혔다.

소설 '종의 기원'은 사이코패스인 주인공 유진을 둘러싼 3일간의 이야기이다. 사건은 집 안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된 어머니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누군가를 밝히면서 드러나는 진실이 이야기의 주를 이룬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나면 '사흘(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흐를 뿐이지만, 독자들은 아주 낯설고도 특별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온전히 보여 주지 못했던 '악'의 속살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소설은 어떤 측면에서는 세상을 향한 악인의 변론서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악인이 되었다'라는 일종의 사이코패스의 자기 합리화다.”

그러나 정 작가는 악인의 자기 변론서이지만 악의 미화는 아니라고 덧붙혔다. 악이 어떻게 존재하고 접화되는가에 대한 심층적 보고서라는 얘기다. 작가는 소설을 쓰면서 세 번이나 스토리를 해체하고 구조화할 만큼 '악' 자체에 집중했다고 한다.

“주인공 유진은 피바다에서 눈을 뜬다. 모두 다섯 번의 살인이 있었다. 의형제 해진이 죽는다.”

초고부터 마지막 퇴고까지 유지된 스토리의 골격은 이 세 가지일 뿐, 나머지는 해체하고 다시 구조화하는 과정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작가는 “초고를 쓰고 나서 보니 주인공의 캐릭터가 선명하지 않았다. 학문적인 관점의 사이코패스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사이코패스라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닌데, 작가의 관점에서 '자기검열'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한다.

“그 같은 원인은 어렸을 때부터 받아들인 윤리 교육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원인을 분석한 그녀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도덕이 아닌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자 비로소 스토리가 생생하게 살아났다”고 말했다.

빠른 호흡과 거침없는 문장, 짝 짜인 이야기 구조는 이렇게 해서 탄생하기에 이른다. 정확하면서도 치밀한 묘사는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예리한 눈과 맞물려 악의 본질을 여과 없이 드러내게 된 것이다.

작가는 지금까지 '내 심장을 찌라'의 점박이, '7년의 밤'의 오영제, '28'의 박동해처럼 매 작품마다 악을 상징하는 인물들에 초점을 맞췄다. 그 이유에 대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성 내면에 깃든 한 단면”이라고 주장한다.

정 작가는 2013년 '28'을 출간한 후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무작정 히말라야로 떠났고, 이듬해 2월에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다. 먼 길을 혼자 걸으면서 '종의 기원'의 시놉시스를 완성했다.

한편 정유정은 최근 카카오를 통해 선보일 예정인 '종의 기원' 외전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화화를 위한 판권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누적 판매수 80만부를 기록한 '홍행보증수표'인 정유정은 '이야기의 힘'을 믿는 작가다. 한국의 순문학의 집체 대안으로 곧잘 그녀가 언급되는 건 그 때문이다.

“순문학이니 장르문학이니 그 경계가 무엇인지 말할 계제는 아니다. 단지 소설은 이야기가가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본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5·18 희생자 넋 위로 '예술잔치'

'100인의 릴레이아트' 27일 오후 8시~ 28일 새벽 2시 5·18광장

박재동 등 만화가·시인·화가 참여
박태진씨 출연 흥겨운 DJ쇼 펼쳐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픔이 서려있는 5·18민주광장. 향쟁 마지막 날인 1980년 5월27일은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도청을 진압하며 30여명이 사망한 날이다.

오는 27일 옛 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전국 예술가 100명이 모여 밤새 그림을 그리며 5·18 희생자 넋을 위로하는 예술잔치를 벌인다.

'제3회 100인의 오월정신 릴레이아트'(이하 릴레이아트)가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새벽 2시까지 5·18광장 일대에서 펼쳐지며 오월 행사 대미를 장식한다. 5·18기념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월정신과 평화통일의 꿈'을 주제로 열린다. 전국 유명 화가·만화가·시인 등이 참여해 각자 하고 싶은 5·18과 통일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이번 행사는 오후 6시 열리는 '5·18민주항쟁 부활제', '오월의 노래' 공연에 이어 펼쳐진다.

참여자들은 분수대 주위로 놓인 가로 90cm·세로 2m 크기 캔버스전에 동시에 그림을 그리며 장관을 연출한다. 시민들은 누구나 광장을 방문해 작업 모습을 구경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참여 작가 면면도 화려하다. 특히 인기 만화를 그렸던 만화가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한겨레신문 만화가 박재동 만화가를 비롯해 '로보트대권브이'를 그렸던 김형배, '도시정벌' 공성술, '폴하우스' 원수현, '바람의 나라' 김진 등이다. 또 '슈팅' 전세훈, '럭키짱' 김성모 등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만화가들도 광장을 찾아온다. 또 조선대, 미술학원 학생들도 참여해 만화 끝나무 숨쉴 수 있다.

참여 작가 유가주 대표 '유민아빠' 김성오씨도 참여해 만화가들 도움으로 함께 그림을 그린다.

화가와 시인들도 참여한다. 홍성당, 주홍, 고근호, 한희원, 채종기, 박구원, 김해성 등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들이 멋진 그림을 준비하고 있다. 김정우·김을현, 이순남 시인은 시를 쓰며 불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을 응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소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SBS에능프로그램 '런닝맨'에 출



기념로 일대에서 진행된 지난 행사 모습.

연하기도 했던 개리커져 대가 안중길씨가 즉석에서 얼굴을 그려준다.

광장 한편에서는 '이미지의 음악릴레이'가 열려 늦봄 밤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팝송, 트랩, 오카리나 연주, 합창 등 지역 공연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또 새벽 12시부터는 DJ 박태진씨가 출연해 흥겨운 DJ쇼를 즐길 수 있다.

릴레이아트에서 제작된 작품들은 오는 7월 5·18 기념재단(광주시 서구 1층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010-6791-805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016무등올림 축제예술감독에 김규랑씨

김규랑(46·사진)씨가 2016무등올림 축제예술감독에 선임됐다.



출 등을 총괄한다.

김 예술감독은 최근 광주시민페스티벌 '사람'의 총감독을 맡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공예 축제' 아트디렉터, 장흥물축제 개막퍼레이드를 총연출했다. 김 예술감독은 "무등산의 자연·문화·예술을 활용한 융·복합적인 문화예술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문화재단은 "2016무등올림축제 예술감독 공모에 응한 문화 기획자 3명을 대상으로 적격자를 심사, 김규랑씨를 예술감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16무등올림 축제는 광주문화재단, 무등산 자락 의재도에 있는 공·사립문화공간 등이 참여하는 행사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16무등올림 예술감독은 축제 계획 수립 및 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과찬은 빛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떡갈비 12,500원	8,500원	5,000원
보네르, 튀김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